

중소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익산지역 15개 기업 선정

도내 3:1 경쟁률 뚫고 지역기업이 25% 차지 쾌거

익산지역 15개 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북도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인 돌음도약-선도-스타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는 관내 기업들의 코로나 출구 전략은 기술개발과 혁신만이 답이라고 판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신청자원을 독려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우선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중 창업 이후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성장력을 갖춘 돌음기업으로 선정된 곳(주)켄 하우스 (주)에스아이테크, 삼성농원, (유)케이एम, 아이 등 모두 5개사다. 올해 최초로 시작된 돌음기업에는 20개 기업 선발하는데 도내 60개 기업

이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그 중 25%를 익산기업이 차지하는 쾌거를 보였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도약기업에는 (주)위텔소재, (주)에스제이천하, 다미플라켄(주) 3개사가 선정돼 2022년까지 3년간 기술개발, 기업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선도기업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선도기업에는 (주)네오크레마가 선정됐다. (주)네오크레마(대표이사 김재환)는 2019년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장내미생물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북대표 식품 바이오 기업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선도기업은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 채용 등을 2024년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 50억~400억 원 이상 최근 5년 평균 매출 증가율 5% 이상 스타 기업으로는 (주)가이비, (주)기원전자, (유)동이스식품 (주)동원프라스틱, (주)새롬, (주)티엔에스(주) 6개기업이 선정됐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질강화에 집중했다"며 "앞으로 시는 기술 R&D분야에 대해 밀도 있게 지원하며 기업 특성에 따라 단계별 성장 시 필요한 대책들을 체계화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최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상담 등 컨트롤타워 역할

군산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최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정길 8-1)'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교육·상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돼 향후 2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등을 맡게 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지역 내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에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등에게 환경에 맞는 경영지원과 컨설팅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사회적경제인큐베이팅센터'로 개소하여 작년 '사회적경제한마당'과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춰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기를 기대한다"며 "지원센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37개소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사회적기업 16개, 마을기업 5개, 자활기업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 비전을 담은 시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시는 지난 15일 홍보영상 제작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 이미지와 변화와 혁신, 군산민의 매력을 담은 종합 영상을 제작해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시 대표 홍보영상은 지난 2013년도에 제작, 2017년도 수정을 거쳐 사용했지만 민선7기 시장방향에 맞는 영상이 필요함에 따라 7년 만에 제작하게 됐다.

홍보영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종합영상 1종, 축약본 1종과 경제·관광·종합 분야 CF영상 3종 등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입찰공고와 협상계약,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투아이드컴퍼니를 제작사로 선정하고 제작을 착수했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 시사회를 거쳐 오는 12월 영상물을 제작 발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귀농·귀촌 정보 '한눈에 쏙'

홈페이지 구축... 지원정책·교육과정 등 원스톱 정보 제공

익산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지역의 관련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이 궁금해하는 정책사항과 교육과정, 주택·농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농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했으며 익산시 대표 홈페이지와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홈페이지에는 올해 추진되는 지원 정책에 대해 사업내용과 자격요건이 상세하게 소개됐으며 다양한 교육과

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귀농 창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 성공 노하우를 예비 귀농·귀촌인과 공유할 예정이다. 대상은 최근 5년간 귀농 창업인 가운데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익산시는 최근 20 농가를 선정했다.

이들은 선도 농업인이나 예비 귀농·귀촌인의 멘토와 멘티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며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촌 빈집과 농지 정보,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귀농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귀농 1번지에 적합한 정책 발굴에 힘을 쏟는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윤동욱 부시장,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 박차

군산 윤동욱 부시장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5일 중앙부처 방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강입준 군산시장의 지난 6일 해수부 차관 면담과 11일과 12일, 국토부·과기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급 면담에 이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윤 부시장은 중앙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위해 먼저 농림부 농기재정책팀을 둘러 현재 군산시에서 3개소로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군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현황이 전년대비 133% 증가한 점과 원거리 지역에서 농기계 임대 시 운반 중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분점설치)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농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의 면담을 통해 수제맥주 특화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익산시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한다.

지난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자녀가 6명 이상 일 경우 월 최대 30㎡, 3명~5명일 경우 10㎡까지 감면된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세대 등은 익산시에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3월말 개정했으며 이날 말 규칙 개정 공포되며 6월부터 상수도과와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7월

상수도요금 부과분부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의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인구조입 효과 등이 있는 익산형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자녀 중심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와 공동주택 감면 확대, 절차를 설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농민단체, 입주 완료 농정거버넌스 기반 마련

익산 농민단체가 농업인회관 입주를 완료하면서 행정과 농업인 간 농정거버넌스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는 지난 15일 정현을 시장과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김구태 회장 등 8개 농민단체 임원진이 모인 가운데 농업인회관 입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회관에는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회장 김구태), (사)익산시농업회의소(회장 김선태), (사)한국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회장 한동웅), 익산시여성농민회(회장 김영순), 익산시과수연합회(회장 이해구), 익산농민연합회(회장 장영수), 한국양봉협회 익산지부(회장 최병욱), 익산농촌교육연구회(회장 윤양진) 등 8개 단체가 입주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